

아까시 꽃 개화기와 겹친 항공방제 계획 일정 변경

한국양봉협회,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

지난 5월 6일,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항공방제 실시계획을 한국양봉협회에 공지한 바 있었다. 그러나 5차까지 잡혀있었던 전국적인 항공방제 계획은 양봉농가들의 아까시 꿀 집중 채밀시기와 겹쳐져 날짜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 본 협회는 산림항공관리본부와 협의를 하여 꿀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시 꽃 개화기를 피해 항공방제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조정하였다.

조정 결과, 대구·경북(영천)지역의 항공방제

일정을 포함한 여타지역의 기존 방제계획 날짜를 5월 말로 미루도록 조치하여 최대한 양봉농가의 꿀벌 폐사 위험성이 줄어들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잘 이용하여 각 지역의 분회장이 항공방제 기간을 확인 후 양봉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산림 담당자와 연락하여 기간을 조정하는 적극적인 자세다. 이러한 협회와 산림항공관리본부의 긴밀한 협조는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를 더욱 줄이기 위한 양봉 농가의 노력이 더해져야 빛이 날 것이다.

농촌진흥청 퇴출대상 공무원 중 64명 사직 2명은 구제, 41명은 교육·농촌 봉사활동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의 퇴출 대상 공무원으로 선정된 107명 중 64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지난달 28일 전체 직원 2천 31명의 5%인 107명을 퇴출 대상으로 선별한 가운데 ‘심의평가위원회’를 통해 2명을 구제했다. 나머지 105명의 퇴출 대상자는 6일부터 6개월간 ‘농업현장기술지원단’에 소속돼 한국 농업대학에서 의식개혁 교육 및 농촌 현장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105명 중 64명이 사직서를 제출해 이날 교육에 입소한 공무원은 41명으로 나타났다. 41명은 심리적 안정 교육과 함께 의식개혁토론 등을 거쳐 농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41명 중 5급 이상은 3명 나머지 38명은 6급 이하 직원이다.

농진청은 3개월 후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현직 복귀를 추진기로 했다.